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속도낸다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
전남 동부 70여개 단체 참여
희생자 좌우합동위령제
특별법 토론회·국민청원 운동

상규명 등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기념사업위는 27일 여주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연다. <관련기사 22면>
기념사업위에는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 시민·사회·노동·환경 등 7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10월 18~21일을 여순항쟁 관련 희생자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70년 만에 최초로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 '좌우합동위령제'와 '여순 10·19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전국 학술심포지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및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벌인다. 각 중단별로 추모예배와 미사, 법회도 진행한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지원조례에 따라 기념사업에서 결정한 학술·문화예술 기념사업 등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기념사업 예산으로는 1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반란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교전과 진압, 사후 토벌 과정에서 무려 1만여 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차원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중단됐다.
18, 19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제주 4·3'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3일 열린 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제주 4·3과 함께 촉발된 여순사건도 국가 차원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위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렸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11개국 18팀...ACC월드뮤직페스티벌 제9회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이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세계 정상급 월드뮤직 아티스트 등 11개국 18개 팀이 공연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11월 평양서 남북교육회의 열자"

북측 대남교류기구에 제안
항일학생운동 계승·교육 논의

광주시교육청이 11월 평양에서 항일 학생운동 관련 남북교육회의를 공동개최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북측 대남교류기구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제안을 담은 장휘국 교육감 서신과 사업계획서를 전달했다.
제 89회 광주학생독립운동(11월3일)에 즈음해 평양에서 남과 북의 교육관계자들이 만나 '항일학생운동을 어떻게 계승하고 교육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북측이 호응하는 답신을 보내오면 일정, 규모, 방식 등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사전 접촉도 중국 등지에서 진행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항일운동의 하나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지난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 이듬해 봄 평양, 개성, 신의주, 함흥, 원산, 회령, 해주 등 남북 전역으로 확산했다. 북한도 '광주학생운동 평양시 보고회'라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그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고등중학교 6학년, 2002년)에도 그 내용을 실어 가르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남북 교육계가 일제강점기 학생항일운동 역사를 공유하고 교육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면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북측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전남 사립학교 22곳
이사장 친인척 31명 교원 근무
행정실 직원은 20개교 21명

광주·전남 사립학교 22곳에서 이사장 조카며느리, 동생, 6촌 제수, 아들 등 친인척 31명이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실장 등 행정실 직원으로는 근무하는 친·인척은 21명(20개교)으로 조사됐다.
26일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9개교 11명이, 전남은 13개교에서 20명이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사장 친척은 광주는 9개교 9명, 전남은 11개교 12명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1 달뜨기 19:45
해질 19:07 달짐 06:22

우산 챙기세요
서해 남부 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겠다.

| | | | | | |
|----|--------|-------|-----|--------|-------|
| 광주 | 흐리고 비 | 24/29 | 보성 | 흐리고한때비 | 23/28 |
| 목포 | 흐리고한때비 | 24/28 | 순천 | 흐리고한때비 | 24/30 |
| 여수 | 흐리고한때비 | 25/29 | 영광 | 흐리고 비 | 24/28 |
| 나주 | 흐리고한때비 | 24/29 | 진도 | 흐리고한때비 | 24/29 |
| 완도 | 흐리고한때비 | 24/30 | 전주 | 흐리고 비 | 22/27 |
| 구례 | 흐리고 비 | 24/28 | 군산 | 흐리고 비 | 20/26 |
| 강진 | 흐리고한때비 | 24/30 | 남원 | 흐리고 비 | 22/27 |
| 해남 | 흐리고한때비 | 24/30 | 흑산도 | 흐리고한때비 | 24/30 |
| 장성 | 흐리고 비 | 23/29 | | | |

◇바다 날씨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남부 | 앞바다 남동~남 | 0.5~1.0 | 남동~남 | 0.5~1.0 |
| 남부 | 면바다 남동~남 | 1.0~2.5 | 남동~남 | 1.0~2.0 |
| 남해 서부 | 앞바다 남동~남 | 0.5~1.0 | 남동~남 | 0.5~1.0 |
| | 면바다(동) 남동~남 | 1.0~2.0 | 남동~남 | 1.0~2.0 |
| | 면바다(서) 남동~남 | 1.0~2.0 | 남동~남 | 1.0~2.0 |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보통: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물때

| 목포 | 간조 | 만조 |
|----|----------------|----------------|
| | 08:10 20:10 | 02:56 14:53 |
| 여수 | 간조 | 만조 |
| | 03:33 15:30 | 09:31 22:00 |

◇주간 날씨

| 28(화) | 29(수) | 30(목) | 31(금) | 9/1(토) | 2(일) | 3(월) |
|-------|-------|-------|-------|--------|-------|-------|
| ☁ | ☁ | ☁ | ☁ | ☀ | ☀ | ☀ |
| 25/31 | 24/30 | 24/30 | 24/31 | 25/33 | 25/33 | 24/31 |

퇴직 앞둔 상사에 98만원 '황금 열쇠'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공무원 20명 5만원씩 각출
춘천지법 "직무 관련 없어"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를 위해 공무원 20명이 1인당 5만원씩을 각출해 마련한 98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퇴직 기념품으로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태백시청 공무원 A씨가 강원도 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소송은 A씨 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2016년 12월 19일 정년을 앞둔 B씨의 송별 회식에 서 B씨에게 퇴직기념품으로 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 등은 1인당 5만원씩을 각출해 마련한 100만원으로, 98만원 상당의 황금 열쇠와 2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자취 벌어진 이 일은 곧바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됐다. 국민권익위는 A씨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이듬해인 지난해 3월 강원도에 이를 통보했고 강원도는 다시 태백시에 통보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A씨 등이 1인당 5만원씩을 각출해 마련한 것으로 퇴직기념품을 구입한 것으로 볼 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퇴직기념품의 가액이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권익위 스스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동료 직원이 각출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퇴직하는 동료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무 관련이 없어 허용하는 점도 고려했다. A씨에 대한 강원도의 처분도 잘못된 만큼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남뉴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단일급),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 매주 토요일 음·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중흥동 270-15)
연락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웅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